



보도시점 2026. 1. 21.(수) 10:30 배포 2026. 1. 21.(수) 10:30

「여성농어업인의 성평등 인식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 의제 본격 추진

-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전체회의와 제3차 기획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여성특위의 핵심 의제인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의 의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다.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은 기존의 단발성 교육을 넘어, 농어촌 여건에 맞는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와 마을 단위 실천 모델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주민자치기구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논의하였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은 출산·육아·돌봄·가사 부담으로 인한 영농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공동급식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공동급식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영모델을 발굴·확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최근 농식품부 내 농촌여성정책팀이 농촌여성정책과로 확대·개편된 것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며, “연구용역과 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특위를 실행과 성과 중심의 기구로 운영해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영이 여성특위 위원장은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은 개별 사업 차원이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확정된 핵심 의제와 포럼을 중심으로 정책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가 제도와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성특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특위는 앞으로 확정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과 전국·권역별 정책 포럼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엄성준 (02-6260-1221)
		담당자	사무관	김선우 (02-6260-1228)